

### 아르헨티나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2016년 상반기 경제동향

서성철 교수  
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

#### ■ 주요 내용

- 2015년 12월, 마크리 대통령 집권 이후 자유시장주의, 개방 경제 정책을 취하면서, 대외신인도 제고 및 투자유치를 위한 외환규제 폐지, 수출세 폐지, 보조금 철폐 등 파격적인 경제개혁이 추진 중임.
- 아르헨티나의 신용등급은 상승되었고 외국인직접투자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임.
- 국내경제 환경의 변화로 경제성장이 예상되나 장기간의 경제침체와 아르헨티나가 지닌 고질적인 모순으로 단기간에 경제가 호전되리라는 전망은 시기상조임.

KIEP **대한경제정책연구원**  
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

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 
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
TEL 044-414-1076 E-MAIL emerics@kiep.go.kr  
http://www.emerics.org/ http://www.kiep.go.kr/

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,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 
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

## 1

## 이슈 현황

### 2015년 12월 아르헨티나 신정부의 출현으로 신경제정책 추진

- 2016년 1/4분기의 국내총생산(GDP)은 2015년 같은 분기에 비해 0.5% 성장함.
  - 많은 전문가들은 이 기간 1~1.3%의 경제하락을 예상했지만,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를 신경제정책의 성과로 간주함.
  - 그러나 이 수치는 인플레이션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, 아르헨티나 통계청(INDEC)의 수정발표에 의하면 실질 GDP는 2015년 동기간 대비 0.7% 하락하였음.<sup>1)</sup>
- 아르헨티나 신정부는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폐소화 환율인상, 곡물 수출세 폐지 및 축소, 원자재 수입규제 완화, 기업 과실송금 확대, 디폴트 해제 등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였음.
  - 2015년 12월 정부 출범 이래 2016년 5월 말까지 약 40개 외국 기업이 투자예정임을 밝혔고, 향후 대아르헨티나 투자액은 총 154억4천5백만 달러로 집계됨.
  - 이 금액은 2015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규모로서, 주요 투자분야는 광물, 에너지, 자동차, 통신 등임.
- 2016년 4월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은 40.5%를 기록함.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2016년 1월 29.6%에서 계속 상승 추세에 있음.

그림 1. 해외직접투자 추이(2013.7~2016.7)

(단위: %)

해외직접투자 추이(2013.7~2016.7)



출처: 아르헨통계청(INDEC)

그림 2. 인플레이션율의 추이(2015.7~2016.4)

(단위: 십억 달러)

인플레이션율의 추이(2015.7~2016.4)



출처: 아르헨통계청(INDEC)

1) 마크리 정부는 이전 정부(네스토르 및 크리스티나 좌파정권)가 경제 통계를 조작했다고 의심해 2015년 12월부터 아르헨통계청(INDEC)의 통계발표를 중단시킴. 그러나 INDEC이 통계자료를 다시 발표하기 시작한 2016년 5월의 인플레이션은 4.2%임. 한편, INDEC이 새롭게 발표한 수정자료에 의하면 2015년 아르헨의 GDP는 2.1%이 아니라 2.37%이고, 2004년에서 2015년간(이전 정부), 경제성장은 65%가 아닌 48.5%로 드러남. 특히 2009년의 경우,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도 아르헨티나는 0.1% 성장한 것으로 공표됐는데 실제로는 6% 하락하였음(Reuter & AFP).

- 2016년 5월 국내 산업 생산은 2015년 동기간 대비 -4.3%를 기록하였음.
  - 이는 4월의 -7.3%보다는 호전된 된 것으로, 5월의 하락 둔화는 아르헨티나의 농산업 생산이 0.6% 증대한 것에 기인함.
  - 경제전문가들은 2016년 아르헨티나의 국내생산은 1.1% 하락하고, 2017년에는 2.5% 증가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함.
- 2016년 6월의 수출은 2015년 동기간 대비 13% 하락하였음.
  - 이는 상반기 중 가장 낮은 수치로서, 이는 농업과 에너지 부문 수출의 부진에 기인함.<sup>2)</sup>
  - 2016년 6월의 수입은 연기준으로 -10%를 기록했는데, 이는 5월의 -1.8% 하락과 비교됨.
  - 6월의 무역흑자는 1억3천만 달러로 기록된바, 이는 2015년 같은 달의 2억8천만 달러보다는 감소하였음.
  -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무역수지는 총 20억 달러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, 이 금액은 연간(2014.6~2015.5) 18억 달러 무역적자보다 높은 수치임.

그림 1. 수출 추이(2015.7~2016.6)



출처: 아르헨통계청(INDEC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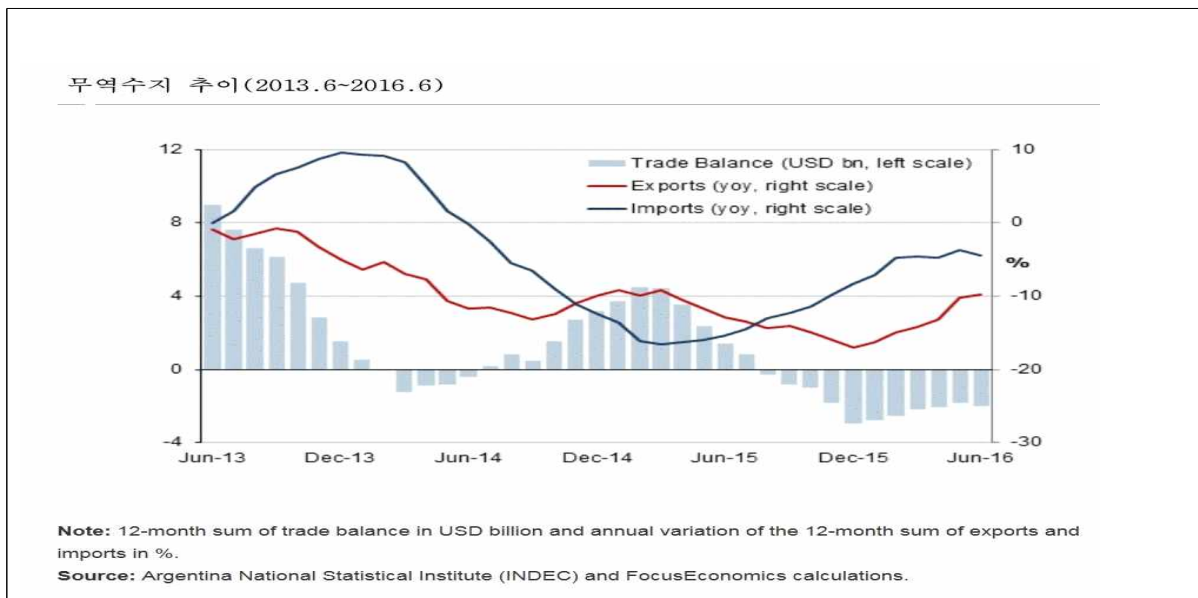
- 2)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품은 농산물 및 관련 상품으로서 전체 수출품의 36%를 차지하고 있다. 차량과 부품(12%), 화학 관련제품(7%), 원유 및 연료(5%), 금속 및 유리제품(4%)이 그 뒤를 잇는다.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 파트너로서는 브라질(21%), 중국(7%), 칠레(6%), 미국(5%), 스페인(4%), 그리고 네덜란드, 우루과이, 이탈리아, 베네수엘라 등이다. 한편,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입품은 중간재가 전체 수입품의 29%를 차지하고 있다. 그리고 자본재용 부품과 액세서리(20%), 자본재(19%), 연료와 윤활유(13%), 자동차(8%) 등이다. 주요 수입국은 브라질(29%), 중국(14%), 미국(10%), 독일(5%), 그리고 멕시코 프랑스, 일본, 한국 등이다.

그림 2. 산 및 소비 부문 지표 추이



출처 : 아르헨통계청(INDEC)

그림 3. 무역수지 추이(2013.6~2016.6)



출처 : 아르헨통계청(INDEC)

## 2 원인 분석

▶ 아르헨티나 신정부는 전 정권의 보호주의, 폐쇄주의에서 벗어나 시장개방, 자유주의 정책으로 전환한바, 신경제정책의 성공 여부 판단은 아직 이룸.

- 아르헨티나 경제의 성공 여부는 그동안 장기침체의 원인이었던 인플레이션 문제의 해결이 관건임.
  - 프랏-가이 재무장관은 올해 인플레이션을 20~25%로 예상했으나, 2016년 1월 이후 인플레이션의 추이는 계속 상승세에 있으며 심지어 6월의 인플레이션은 이미 40.5%를 상회하였음.

▶ 상반기 GDP의 상승, 물가의 억제 및 통화문제 해결, 그리고 무역수지의 개선 및 외국투자의 유치 등에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음.

-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경기 침체의 주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을 지적하면서 금리 인하보다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치중하고 있음.
  - 정부는 인플레이션 상승을 막기 위해 기업과의 가격 안정화 협약 등 가격통제정책을 취하고 있음.
  -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국내생산 하락 및 내수 침체를 야기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비판 의견이 있음.
  - 한편, 고금리(2014년: 24%, 2016년 6월: 40.5%)는 기업과 개인으로 하여금 자금을 조달받지 못해 투자와 소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딜레마를 갖고 있음.
- INDEC의 통계작업 수정이 끝나 소비자 물가, 고용, 인플레이션 등 통계수치가 나오면 2016년 하반기는 물론 그 이후의 아르헨티나 경제의 추이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음.

## 3 전망과 시사점

▶ 아르헨티나 경제는 향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님.

- 아르헨티나 정부 및 경제 전문가들은 상반기 디폴트 탈출과 국내 경제정책의 안정으로 2016년 말부터 정책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
  - 더불어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가 해결된다면 아르헨티나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탈 것이라고 덧붙임.
- 전문가나 현지 기업가 대부분은 2016년 하반기 이후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리라 예상

- IMF 역시,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을 19.9%로 낮게 예측하면서 2017년 아르헨티나 경제는 2.8%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이라고 전망함.<sup>3)</sup>
- 아르헨티나의 신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, 아르헨티나 최대교역국인 브라질 경제의 침체 및 해알화 평가절하, 국제 곡물 가격의 하락 등 외부환경의 변수가 있어 경제회복은 낙관할 수 없음.
- 아르헨티나 신정부의 경제구조 조정이 실패한다면 노조의 파업 등으로 이어져 사회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, 이는 외국투자의 유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.
- 한편, 현 마크리 정부의 지지세력이 등을 돌리면 정부는 신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 타격을 받을 수 있음. **EMERiCs**

#### 출처

-아르헨통계청(INDEC)

-Argentina 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(INDEX) and Focus Economics calculations

3) KOTRA, IMF, Rueter